수능 후 시력교정술 적기 …정밀검사로 적합한 수술법 찾아야



건강 바로 알기

시력교정술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수능)이다 가오면서, 길고 길었던 수험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고3 수험생들의 막바지 학습 열기가 뜨겁다. 이와 함께 대학 입학 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답답한 안 경과 렌즈에서 벗어나길 꿈꾸는 수험생 및 예비 대 학생들의 안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매일같이 책 과 컴퓨터,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면서 시력이 크게 떨어진 경우가 많아, 겨울 방학을 시력 교정의 '골 든타임'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 낮아지는 근시 발병 연령, 시력교정술 언제 받 아야 할까?

최근 몇 년간 PC와 스마트 기기 사용량 증가로 근시 발병 연령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근시 환자의 약 60%를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차지했으며, 매년 120만 명 내외의 환자가 근시로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아청소년기의 근시 진행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인이 되어 시력교정술을 찾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력교정술은 근시, 난시 등 굴절 이상으로 저하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로,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렌즈삽입술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만 18세 이상이 되면 안구 성장이 멈춘 것으로 판단

라식·라섹 장점 결합하고 단점 보완 3세대 교정술 스마일라식·스마일프로 각막손상·부작용 최소화…회복도 빨라 전문적인 상담으로 신중하게 선택

하지만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정밀 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통해 눈 성장이 완전히 종료되었는지 확인 하고 최적의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능 후나 방학 기간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일상 스트레스가 적은 시기는 시력교정술을 위한 최적의 시기로 꼽힌다.

◇ 라식·라섹의 장점만 쏙! 3세대 시력교정술 '스마일라식 & 스마일프로'

수많은 시력교정술 중에서도 최근 수험생들에게 특히 주목받는 것은 3세대 시력교정술인 스마일라 식이다. 스마일라식은 기존 라식과 라섹의 장점은 결합하고 단점은 보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각막 절편을 생성하거나 상피를 제거하지 않고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 실질 부위만을 정교하게 분 리한 뒤 미세한 절개창을 통해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이러한 수술 방식은 각막 손상을 최소화하고 각 막 신경 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빛 번짐, 각막 혼 탁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 또 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점 덕분에 바쁜 수험생들에게 특히 각광받고 있다. 각막이 얇거나 고도근시, 초고 도근시, 고도난시 환자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시력 교정의 폭을 넓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스마일라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스마일프로가 도입됐다. 스마일라식과 원리는 동일하지만 레이저 조사 시간이 기존 대비 1/3 수준인 10초 이내로 단축되어 수술 안정성과 정밀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또한, 센트럴라인과 오큘라인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더욱 정교한 난시 교정까지 가능해졌다.

◇ 성공적인 시력교정술을 위한 '현명한 선택' 가

시력교정술은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지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 인별 눈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 서 성공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 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철저한 정밀 검사: 시력, 안구 상태, 각막 두께, 동공 크기, 안구 건조 정도 등 개인별 눈 상태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검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된 의료진과 정품 장비: 저렴한 비용이나 인터넷 후기에만 의존하기보다, 스마일라식 개발 본사 독일 '칼자이스'의 닥터 인증을 보유한 숙련된 의료진이 상주하는지, 정품 비쥬맥스 500 또는 비 쥬맥스 800 (스마일프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진의 경험과 원내 시스템이 수 술 결과의 만족도와 안정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안 구건조증 등 부작용 관리와 시력 유지를 위해 체계적 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운영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상태를 체크하며 꾸준하게 관리해야 한다.

광주신세계안과는 스마일라식 누적 건수가 9만



김재봉 신세계안과 원장이 시력교정술을 원하는 환자의 각막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례를 돌파하며 지역 내에서 독보적인 임상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스마일라식 초기 도입부터 꾸준히 수술 경험을 쌓으며, 수능 이후 시력교정술 을 문의하는 수험생 및 대학생 환자들을 위해 선재 적으로 스마일프로 장비 2대째 도입을 추진하여 최 신기술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시력교정술 은 단순히 안경을 벗는 시술이 아니라. 눈의 구조와 상태를 정확히 이해한 뒤 진행해야 하는 정밀 의료 과정"이라며 "광주신세계안과는 스마일라식 9만 례 달성으로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별 맞 춤 수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정밀한 검사 시스템 과 안전 중심의 수술 프로세스를 통해 젊은 세대가 더욱 편안하고 선명한 시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전했다.

수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수험생들이 안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선명한 시야를 만끽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정보보다는 전문적인 상담과 충분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눈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더 빠르고 정확…광주기독병원, AI기반 CT 도입

GE 'Revolution APEX Elite' 심장·뇌혈관 질환 진단에 적합

광주기독병원이 인공지능 기반의 최신 CT 장비 인 GE Healthcare의 'Revolution APEX Elite' 를 도입해 진료의 정확성과 환자 안전성에 더욱 주 력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Revolution APEX Elite는 0.23 mm 해상도와 0.23초 회전속도, 160mm Detector Coverage를 갖춘 최신형 CT 장비로, 심장 및 뇌혈 관 질환 진단에 적합한 검사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TrueFidelityTM Deep Learning Reconstruction 기술을 탑재해 저선량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재구성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미국 FDA의 최초 인공지능 CT 영상 재구성 기술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환자의 피폭을 줄이면서 영상 품질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한 Revolution APEX Elite는 높은 심박수나 심박이 불규칙한 환자도 심박수 조절제를 복용하지 않고 촬영이 가능해 효율성과 환자 편의성을 향상 시켰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전남환경보건센터·광주전남지역암센터, 국내 첫 '제1회 환경성암 심포지엄'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와 광주전남지역암센터가 최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환경성암(Environmental Cancer)'을 주제로 '제1회 환경성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 제암연구소(IARC)가 2023년 12월 과불화화합물 (PFAS,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의 대표 물질인 PFOA(Perfluorooctanoic acid)를 1군(Group 1)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에 환경과 건강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살펴본 국내 첫 학술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생활환경 속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정보 공유와 예방 중심의 환경보건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장인 박원주화순전남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 요인은 바꿀 수 있다. 생활 속 화 학물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 고 말했다.

김형록 광주전남지역암센터장은 "이번 논의는 암 예방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자 지역사회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 행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현장으로 이어져 야 한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결핵·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이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만성폐쇄성폐질 환(COPD)과 결핵 적정성 평가 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 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에서 10년 연속 1등급 을 이어오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주로 40세 이상 성인에서 주로 발병하며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숨이 차고 만성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호 후기 질환이다

이번 COPD평가는 심평원이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만 40세 이상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평가 지표는 ▲ 폐기능검사 시행률 ▲ 지속방문 환자비율 ▲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

자비율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은 87.9점, 화순전남대병원 93.7점, 조선대병원 94.6점을 각각 획득해전체 평균 70.2점을 크게 웃돌았다. 이로써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2014년부터 평가가 시행된이후로 10년 연속 1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